

한국대기보전학회

대기측정망에 관한 세미나



한국대기보전학회(회장·노재식)는 지난 12월 11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 및 환경기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대기오염관리에 주요한 자료가 되는 측정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대기오염 측정망 및 환경기준의 역사적 배경」, 「측정망 설치, 설계기법」 등 5편의 주제발표와 9명의 토론자들이 측정망설치·운영 및 관리와 환경기준에 7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국환경기자클럽

김대중총재 초청간담회



최근 발족한 한국환경기자클럽은 지난 12월 21일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평민당 김대중 총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90년대 환경영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들과 김총재와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총재는 팔당호 끌재채취, 군산 TDI 공장건설, 핵발전소 설립, 설악산 훼손 문제 등 '90년도의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평민당의 입장'을 밝혔다.

(사)환경보전협회

공개토론회 개최



(사)환경보전협회(회장·정수창)는 21세기를 향한 국민 환경인식의 전환방향—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12월 10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 토론회에는 국제환경문제연구소장 안기희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학교육실 최석진실장, 환경처 홍보지도과 손희만과장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석, 토론을 벌였다.

環公라이온스클럽

'90 송년모임 개최



환경관련 젊은 기업인들로 구성된 環公라이온스클럽(국제라이온스클럽 309-A 지구 소속)에서는 지난 12월 27일 마포에 소재한 서교호텔 연회장에서 관계인사 및 클럽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環境을 보호하고, 公害를 추방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 클럽은 체계적인 환경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을 돋는 봉사단체로 앞장서고 있다.

초청강연 및 연례발표회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소장·이종범)는 지난 12월7일 동 대학 교육사호관에서 연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상수도 소독시 파괴점 염소 주입에 관한 역학적 모델」, 「STREAM모델의 개발과 연구」등 동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연세대 정용교수, 한국건설연구원 한무영연구원의 특별초청강연도 있었다.

지난 10여년간 플랜트 및 설비전문업체로 꾸준히 발전해온(주)신세계엔지니어링(대표이사·여명균)은 최근 서울지방환경청 종합 제169호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로 등록('90. 12. 8)을 마쳤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5

(백암 B/D 201호)

전화: 547-6171

FAX: 548-6864

「올해의 환경인」 으로 선정



평민당 박영숙부총재는 한국환경기자클럽 선정, 제1회 「올해의 환경인」으로 뽑혔다.

박 부총재는 환경문제 전문상담기관인 「녹색의 전화」를 개설한 것을 비롯, '90년 한해동안 발생한 주요 환경문제의 현장조사 및 대책마련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同 클럽에 의해 선정된 것이다.

자가측정대행업 및 실험계측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서보환경(株)·서보상사(대표이사·김호정)에서는 '90년도 송년회 행사를 갖는 대신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주변의 미담이 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28일 회사 송년회 비용전액과 직원들의 연말보너스 중 일부를 모금하여 신월동 소재 서울 SOS어린이 마을 2동에서 훈훈한 인정을 나누고, 차매결연을 맺었다.

“人間은 環境의 創造者이며 被造物이다”

環境大辭典

編著 全仁權

“단 하나뿐인 지구”는 보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환경은 인구증가, 도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연의 파괴와 공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해동안에 1천 5백여가지의 새로운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로인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지구생태계 파괴현상은 환경의 질적 향상과 환경공학의 발전을 요구하게되고 이에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환경분야의 지식이 절실히 요청됨은 물론, 여기에 따른 용어의 바른 이해를 돋고 환경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코자 환경용어를 집대성하여 국내 최초로 환경전문용어 대사전을 탄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분야에 종사자는 물론 학계, 관계기관, 단체, 국민 모두에게 귀중한 자료로서 업무와 학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環境新聞社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593-8
전 화: 453-3260, 455-5244
FAX: 454-1826